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와 핵심 문제가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Effects of Surface and Core Problems in Marriage
on Dysfunctional Communication Behaviors in Marital Arguments
: Focusing on Married Women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노인생활환경연구소

박사 · 연구원 권 윤 아

교수 · 연구원 김 득 성**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

Doctor · Research Fellow : Yoona Kwon

Professor · Research Fellow : Deuksung Kim

<Abstract>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ability to predict Gottman's four dysfunctional communication behaviors during marital arguments based on the level of surface and core problems in marriage. Core problems were composed of three factors: caring, power, and commitment problems.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82 married women residing in Busa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a woman's degree of criticism was predicted by surface and caring problems when controlling for the other variables. The degree of contempt was predicted by a commitment problem as well as surface and caring problems. Defensiveness was determined only by a commitment problem, while stonewalling was determined only by a power problem. Overall, these results showed the importance of core problems in understanding the causes of the four dysfunctional communication behaviors - especially contempt - and suggested that addition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a commitment problem as a contributor to the expression of contempt and defensiveness.

▲주제어(Key Words) : 표면적 문제(surface problem), 핵심 문제(core problem),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dysfunctional communication behavior), 부부싸움(marital arguments)

* 본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학술연구비(2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Deuksung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Tel: +82-51-510-2833, E-mail: deskim@pusan.ac.kr

I. 서론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하지만 결혼생활에는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부가 되어 한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게 되면 서로 기대와 욕구, 목표의 불일치로 부부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때로는 갈등이 겉으로 표출되어 부부가 언어상으로 대립하는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부부싸움은 어떤 부부에게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부는 격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부부싸움을 함으로써 갈등과 불화가 극에 달하게 되고 심어는 이혼으로 갈라서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2012년 한 해 이혼 건수는 무려 11만 4천 3백건으로(Statistics Korea, 2013), 이혼하는 부부가 이처럼 많은 것은 부부갈등을 원만하게 다루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Gottman(1999)은 이혼하는 부부들이 다툰 때 특히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난이란 배우자의 구체적인 행동보다 성격을 공격하는 것이다. 경멸은 잘난 체하면서 의도적으로 멸시와 모욕, 창피를 주는 것으로 관계를 가장 많이 손상시키는 것이다(Driver et al., 2003). 방어는 배우자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반박하는 것이며, 냉담은 싸움에 압도되어 굳은 표정으로 침묵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방식으로 배우자를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이 네 가지 의사소통 행동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될수록 관계가 아주 고통스러워지면서 이혼하게 되기 쉽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 네 가지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이 낮은 수준의 결혼만족도(Kwon & Kim, 2008b; Song & Chae, 2008; Hong & Chae, 2010)나 부부적응(Song, Mun, & Kim, 2012)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부부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여성은 비난을 하면서 싸움을 먼저 주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보다 비난의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Gottman & Levenson, 1999; Whelan, 2006; Kwon & Kim, 2008b). 그리고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은 냉담도 남편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Kwon & Kim, 2008b) 부부싸움을 냉담으로 마무리하는 경향도 높았다. 게다가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들은 여성에게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킴으로써 남성보다 여성의 건강에 더 해로운 것으로 밝혀졌다(Heffner et al., 2006; Denton, Bursleson, & Brubaker, 2009). 그러므로 여성이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움으로써 부부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도 지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여성이 사용하는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에 초점을 두고, 기혼여성이 이러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을 사용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들은 평소에 여러 가지 결혼생활 문제로 마음속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Storaasli & Markman, 1990)이 한순간에 몰려와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Weiss, 1980).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생활 문제를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Miller et al., 2003; Kwon & Kim, 2011) 기혼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생활 문제가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을 유발시키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생활 문제라고 하면 보통 자녀양육, 돈, 가사일, 성관계 등의 영역에서 배우자에게 불만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이 겉으로 경험한 사건 중심의 문제로, 원한다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확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Sillars et al., 2001) 표면적 문제라고 명명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생활에서 이러한 표면적 문제(Arellano & Markman, 1995; Lee & Jang, 2002; Sanford, 2003; Hyun, 2008; Kwon & Kim, 2011)를 높게 지각할수록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갈등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 문제에는 표면적 문제뿐만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핵심 문제도 있다. 최근 들어 여러 연구자들(Davila, 2005; Johnson, 2008; Wilmut & Hocker, 2011)은 부부사이의 표면적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드러나기 어려운 핵심 문제가 따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과 관심,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Satir et al., 1991; Park, 2011). 이것은 너무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관계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정서적 박탈감과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다(Johnson, 2008). 핵심 문제를 누구나 가장 바라는 관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지각되는 것으로서, 연구자들(Raush et al., 1974; Gottman, 1983; Krokoff, 1990; Christensen & Jacobson, 2000)은 모든 부부싸움의 핵심에는 사랑과 관심 문제와 권력 문제가 가장 많다고 하였다. 부부가 표면적으로는 자녀 문제로 싸우고 있더라도 그 부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문제는 '배우자가 나에게 무관심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사랑과 관심 문제와 '배우자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통제하고 지배하려 든다'는 생각이 드는 권력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 문제들은 표면적 문제보다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표현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렵다(Sillars, Canary, & Tafoya, 2004). 또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웬지 자신을 전부 보여주는 것 같아 숨기는 경향이 있다(Gottman, 1983; Krokoff, 1990; Markman, Stanley, & Blumberg, 2010). 하지만 핵심 문제들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안전감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부부사이에 핵심 문제가 있는데 이를 내버려두거나 터놓고 대화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도 파괴적인 방식

으로 계속해서 싸우게 될 수 있다(Krokoff, 1990; Markman, Stanley, & Blumberg, 2010). 그리고 Kwon and Kim(2011)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핵심 문제들이 표면적 문제보다 부부 갈등 상황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을 더 많이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결혼생활의 핵심 문제로 사랑과 관심 문제와 권력 문제에 주로 초점을 두는 편이었으나, Markman, Stanley, and Blumberg(2010)에 의해 더 세분화된 핵심 문제들 중에서 헌신 문제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 헌신이란 관계를 영원히 지속시키고 싶다는 바람으로서(Rusbult, 1983), 부부는 헌신의 서약을 통해 맺어지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깊은 안전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지속할 마음이 없고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헌신 문제가 있게 되면 부부가 한 팀이라는 느낌이 사라지면서 결혼해체의 위기감과 거부당한 상처가 극에 달하게 될 수 있다(Markman, Stanley, & Blumberg, 2010). 그러므로 결혼생활에서 헌신 문제가 있다면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헌신 문제의 영향을 주목한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헌신 문제가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은 모두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에 속하지만, 이들 각각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이들이 유발되는 기제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각각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이 유발되는데 더 많이 관여하는 결혼생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것을 밝힌다면 각각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혼여성이 사용하는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결혼생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난과 비슷한 개념인 요구(demand)에 관한 연구들(Christensen & Heavey, 1990; Heavy, Layne, & Christensen, 1993; Caughlin & Vangelisti, 2000; Kluwer, Heesink, & Van De Vliert, 2000; Vogel & Karney, 2002; Holley, Sturm, & Levenson, 2010)은 배우자에 대한 비난이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를 높게 인식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며 변화를 바라는 것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또한 비난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요구는 배우자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은 친밀감을 원할 때에도 증가하였다(Mason & Blankenship, 1987; Christensen, 1988; Walczynski, 1997; Caughlin & Vangelisti, 2000). 이를 볼 때 기혼여성의 비난은 결혼생활 문제 중에서 특히 표면적 문제와 사랑과 관심 문제의 영향을 비교적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Gottman, 1999; Fischer & Roseman, 2007; Hut-

cherson & Gross, 2011; Ufkes et al., 2011)에서 경멸은 상대방을 무능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무능함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관련되어 있었다. 결혼생활에서 표면적 문제가 반복될수록 배우자를 무능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면적 문제가 경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rokoff(1990)는 사랑과 권력에 관한 핵심 문제의 중심에 경멸의 감정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랑과 관심 문제와 권력 문제가 배우자를 경멸하는 중요한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헌신 문제도 관계의 중요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실망감, 결혼해체의 위기감과 거부당한 느낌을 강하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Markman, Stanley, & Blumberg, 2010) 가장 파괴적인 방식인 경멸(Driver et al., 2003)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Wilmot and Hocker(2011)는 상대방의 통제와 독단,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때 방어와 냉담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보호적 성격이 강한 방어와 냉담은 특히 배우자의 통제와 지배를 지각하는 권력 문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여성이 결혼생활에서 지각하는 표면적 문제와 함께 핵심 문제를 사랑과 관심 문제, 권력 문제 및 헌신 문제의 세 하위변인으로 세분화하고, 이들 네 변인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인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 각각에 상대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Gottman(1999)에 따르면 불행한 부부는 싸움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격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을 사용하기 때문이며 바로 이러한 싸움 방식이 이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였다. 비난은 배우자가 특정 상황에서 행한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배우자의 전반적인 성격 결함을 공격하는 것으로(Driver et al., 2003)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Gottman, 1999). 부부가 비난에 익숙해지면 차츰 배우자를 낮추어 보면서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상처를 주는 경멸과, 배우자의 공격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변명과 반격을 하는 방어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부부가 높은 수준의 비난, 경멸, 방어를 많이 사용하며 다투게 되면 갈등에 압도되어 굳은 표정으로 소통을 완전히 피하는 냉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부부사이의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Gottman, 1999; Driver

et al., 2003).

Driver et al.(2003)은 행복한 부부도 비난, 방어, 냉담을 사용할 때가 가끔씩은 있지만 경멸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멸이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 가장 강하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외 연구에서 비난과 냉담의 사용 정도에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비난은 여성이(Gottman & Levenson, 1999; Whelan, 2006; Kwon & Kim, 2008b), 냉담은 남성이(Gottman & Levenson, 1999)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냉담 사용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도 있었다(Whelan, 2006; Kwon & Kim, 2008b).

선행연구에서 이 네 가지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은 결혼만족도(Gottman, 1999; Kwon & Kim, 2008b; Song & Chae, 2008; Hong & Chae, 2010; Graber et al., 2011)나 부부적응(Song, Mun, & Kim, 2012)과는 부적의 관계가, 이혼경향성(Gottman, 1999; Graber et al., 2011)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부싸움에서 이 네 가지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을 사용하게 되는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와 핵심 문제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높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를 기대한다(Beck, 1988). 하지만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는 결혼생활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기 마련이고(Adams, 2004)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불만과 좌절도 그만큼 크게 느끼게 된다. 결혼생활 문제란 배우자에게 불만을 느끼는 문제로서, 부부들은 일반적으로 자녀양육 문제, 돈 문제, 가사일 문제, 성관계 문제, 친인척 문제, 음주 문제 등을 주로 보고한다(Miller et al., 2003; Lee, 2009; Chung et al., 2010). 이러한 문제들은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통 부부싸움의 주제와 내용을 이루는 것들이다(Christensen & Jacobson, 2000). 이러한 문제들은 선행연구에서 표면적 문제(Davila, 2005) 혹은 내용 문제(content issue)(Sillars et al., 2001; Wilmot & Hocker, 2011)라고도 불리어졌으며,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혼을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Adams, 2004; Henry & Miller, 2004).

결혼생활에는 표면적 문제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아주 깊고 추상적인 수준의 핵심 문제도 있다. 핵심 문제란 인간이면 누구나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과 관심, 존중, 헌신 등이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숨겨진 문제(Gottman, 1983; Krokoff, 1990; Markman, Stanley, and Blumberg, 2010), 근본적 문제(Davila, 2005) 혹은

근본적 고민(Sanford, 2010)이라는 용어로도 불리어진다. Rausch et al.(1974)은 부부가 식기세척기 때문에 싸우지만 실제로는 관심, 존중, 자율성에 관한 훨씬 더 깊은 문제 때문에 싸운다고 하였다. 이들은 결혼생활의 핵심 문제가 친밀감과 권력의 문제라고 하였다. Christensen and Jacobson(2000)도 모든 관계에서 친밀감과 사랑, 통제와 권력에 관한 문제가 자아이미지와 관계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Gottman(1983)과 Krokoff(1990)도 배우자가 사랑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중요한 결정에서 자신이 의견을 내지 못하거나 관계에서 영향력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부부사이에 불안전감을 느끼게 만드는 숨겨진 문제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연구자들이 조금씩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부부사이의 가장 핵심 문제가 사랑과 관심 문제와 권력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Markman, Stanley, and Blumberg(2010)는 이 두 가지 핵심 문제 외에 인정, 헌신, 몰이해 및 수용의 문제도 부부에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숨겨진 문제라고 하였다. 결혼생활에 이러한 핵심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깊은 실망감과 상처, 분노, 불안, 거부당한 느낌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Beck, 1988; Davila, 2005; Johnson, 2008) 배우자와 사소한 일로 격하게 싸우게 되고(Krokoff, 1990; Markman, Stanley, & Blumberg, 2010) 부부사이의 갈등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Krokoff, 1990; Christensen & Jacobson, 2000). 그러므로 부부싸움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을 사용하게 되는 원인으로서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와 핵심 문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와 핵심 문제의 영향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표면적 문제와 핵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수록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증가시켜서(Olsen & Stephens, 2001) 다양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Weiss, 1980; Schindler, Halhweg, & Revenstorf, 2007). 먼저,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에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결혼생활에서 표면적 문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갈등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rellano & Markman, 1995; Lee & Jang, 2002; Sanford, 2003; Hyun, 2008; Kwon & Kim, 2011). 특히, 표면적 문제는 부정적인 갈등행동 중에서도 배우자에게 불평, 비난, 잔소리하는 요구와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Christensen & Heavey, 1990; Heavey, Layne, & Christensen, 1993; Caughlin & Vangelisti, 2000; Vogel & Karney, 2002; Kluwer, Heesink, & Van De Vliert, 2000; Holley, Sturm, & Levenson, 2010). 연구

자들은 배우자에 대한 비난이나 요구는 표면적 문제로 인해 쌓여 있던 부정적인 감정이 갑자기 물려올 때 이를 발산시키기 위한 것이거나(Christensen & Jacobson, 2000; Wilmot & Hocker, 2011) 배우자의 정신이 번쩍 들게끔 주목을 끌어 서(Wilmot & Hocker, 2011) 변화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라고 하였다(Raush et al., 1974). 그러므로 결혼생활에서 표면적 문제를 많이 지각할수록 위와 같은 동기에서 배우자에 대한 비난이 증가할 수 있다.

한편, 경멸은 배우자를 무능하게 여기고 배우자의 무능함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ttman, 1999; Fischer & Roseman, 2007; Hutcherson & Gross, 2011; Ufkes et al., 2011). 배우자를 무능하게 여기는 마음이나 배우자의 무능함에 체념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은 결혼생활에서 표면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가 경멸의 유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에 결혼생활의 핵심 문제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Kwon and Kim(2011)은 표면적인 배우자의 문제행동보다 핵심 문제에 관한 부정적 해석이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을 더 많이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핵심 문제가 표면적 문제보다 더욱 심한 좌절감과 고통을 주기 때문으로 여겨진다(Markman, Stanley, & Blumberg, 2010). Sillars et al.(2000)의 연구에서도 불행한 부부들은 행복한 부부들에 비해서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보다 사랑과 권력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논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논쟁할 때 더 격하고 파괴적인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인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 각각에 대해 결혼생활의 핵심 문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Park(2011)은 사람들이 중요한 타인과의 친밀감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이를 충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 연구(Mason & Blankenship, 1987; Christensen, 1988; Walczynski, 1997; Caughlin & Vangelisti, 2000)에서도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관계에서 더 많은 친밀감을 바랄수록 갈등 상황에서 비난 등의 요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사회화로 인해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남성보다 강한 편이고(Kluwer, Heesink, & Van De Vliert, 2000) 관계에서 친밀감을 더 많이 원한다(Christensen, 1988). Beck(1988)은 여성은 남성보다 관계의 이상 징후에 민감하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기분이 울적해지면서 마음의 평정을 잃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격적인 태도는 유대감 단절로 인한 두려움을 처리하고(Johnson, 2008) 상대방의 관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Murray et al.,

2003). 따라서 기혼여성이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의 사랑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각할수록, 친밀감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데서 오는 욕구 불만으로 비난을 사용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둘째, Krokoff(1990)는 부부간 사랑과 권력에 관한 숨겨진 문제의 핵심에는 경멸의 감정이 있다고 하였다. Fischer and Roseman(2007)의 연구에서도 친밀감 부족이 경멸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랑과 관심 문제 및 권력 문제가 경멸이 나타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경멸은 배우자가 중요한 약속이나 규범을 어겨 존경심이 사라질 때에도 나타난다(Fischer & Roseman, 2007). 헌신은 관계의 안전감을 보장하는 상징으로서(Markman, Stanley, & Blumberg, 2010) 부부사이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따라서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의 헌신 부족을 자주 느끼게 되면 깊은 실망감과 더불어 관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불안감과 버림받은 상처로 크게 분노하게 될 수 있다(Knobloch et al., 2007; Markman, Stanley, & Blumberg, 2010). 그러므로 사랑과 관심 문제와 권력 문제뿐만 아니라 헌신 문제도 매우 파괴적인 경멸이 나타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셋째, Wilmot and Hocker(2011)는 상대방이 평가, 판단, 통제하려고 하거나 독단적이라고 지각될 때 방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상대방의 영향력을 받아들이기 두렵거나 화가 너무 나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냉담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Caughlin and Vangelisti(2000)도 배우자가 융통성이 없으면 배우자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철회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Kwon and Kim(2008b)은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남편 못지않게 냉담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부장적 권위구조로 인해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을 해도 얻는 것이 없다고 느낀 결과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핵심 문제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가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상대방을 통제하려고만 한다는 권력 문제가 지각될수록 부부싸움에서 자기보호적 성격이 강한 방어와 냉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을 살펴보면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 각각마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결혼생활 문제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네 가지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들에 어떠한 결혼생활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부산광역시 6개구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을 가정, 회사, 교회, 성당,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를 통해 연령이 편중되지 않도록 표집하였다. 총 2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질문지가 195부로,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초등학교의 경우 아동의 가정환경이 드러나지 않도록 질문지를 학급 단위로 한 부모 가정이나 부모가 없는 가정에도 배부하였기 때문이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182부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30~39세가 5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49세가 39.0%, 30세 미만 5.5%, 50세 이상이 0.5%였다. 학력은 대졸이 57.1%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34.1%, 대학원 졸업이 8.2%로 나타나 학력이 높은 여성이 많았다. 직업은 무직·주부가 50.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직 13.7%, 관리직·전문직 13.7%, 기술직·판매서비스직 12.1%, 소규모자영업 6.0%, 노무직·생산기능직 3.3% 순이었다. 결혼기간은 11~15년이 3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10년 27.5%, 5년 이내 20.3%, 16~20년 12.6%, 21년 이상 2.8% 순이었다. 자녀수는 2명이 5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명 27.5%, 3명 이상 9.9%, 0명 3.8% 순이었으며, 결혼형태는 초혼 부부가 96.7%, 재혼 부부가 3.3%였다.

2. 측정도구

1)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 척도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Lee(1998)가 개발한 16문항의 부부갈등 척도에서 표면적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성격, 사고방식, 애정이나 관심에 관한 3문항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와 중복되는 대화 문항 그리고 다른 문제들보다 훨씬 심각한 외도나 부정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이 척도는 생활습관, 음주·흡연, 금전관리, 가사일, 가족여가활동, 주거·주택계획, 자녀양육·교육, 친인척·집안대사, 친구·사회활동, 직장일·직업변경, 부부간 성생활의 영역에서 배우자에게 불만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총 11문항이다. 응답

1) 본 연구에서 표면적 문제 척도로 선택하여 수정한 문항들에 대해 varimax 회전을 사용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요인이 고유치 1이상으로 추출되었다. Lee(1998)의 연구에서 네 요인의 부부갈등 척도의 전체 점수가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에서 추출된 세 요인들이

범주는 '전혀 없음'(1점)에서 '거의 항상 있음'(5점)까지의 5점 리커트 형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서 불만을 느끼는 표면적 문제를 지각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0이었다.

2) 결혼생활의 핵심 문제 척도

결혼생활의 핵심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Markman, Stanley, and Blumberg(2010)의 사랑과 관심, 권력 및 헌신 문제의 개념을 토대로 각 4문항의 세 하위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사랑과 관심(예: 배우자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력(예: 배우자가 나를 통제하려 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및 헌신(예: 배우자는 힘든 일이 닥치면 내 곁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 정도를 묻는 총 12문항이다. 응답 범주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형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사랑과 관심, 권력 및 헌신에 관한 핵심 문제를 지각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사랑과 관심 문제 .92, 권력 문제 .92, 헌신 문제 .91이었다.

3)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을 측정하기 위해 Kwon and Kim(2008a)이 개발한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비난(예: 배우자에게 '당신은 항상, 또 문제'라는 식으로 말한다), 경멸(예: 배우자에게 가시 돌친 욕설과 모욕을 주는 말을 한다), 방어(예: 배우자가 하는 말에 놀라서 펄쩍 뛰면서 전부 부인한다) 및 냉담(예: 굳은 표정으로 침묵한다)의 네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척도의 문항 수는 비난, 경멸, 방어가 각 5문항이며 냉담이 4문항으로 총 19문항이다. 응답 범주는 지난 1년 동안 부부싸움을 할 때 각 문항에 해당되는 행동은

다시 표면적 문제라는 한 개의 2차 요인에 부하된다고 가정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설정된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chi^2(df)$ 값이 46.37(41)이었으며($p=.261$) TLI가 .98, CFI가 .99, RMSEA가 .03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었다. 1차 세 요인에 대한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39~.69, 2차 요인에 대한 세 요인의 요인부하량은 .80~.86으로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 척도가 구성 타당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2) 12문항에 대해 varimax 회전을 사용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세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80%였다. 1요인은 사랑과 관심 문제, 2요인은 권력 문제, 3요인은 헌신 문제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68이상, 공통분포 모두 .73이상으로 나타나 이 척도가 구성타당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배우자에게 했는지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형식이다. 각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싸움을 할 때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을 많이 사용하였음을 나타낸다.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비난이 .89, 경멸 .89, 방어 .85, 냉담 .84였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주로 SAS 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척도의 내적일치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하고 Mplus 5.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와 핵심 문제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와 핵심 문제의 영향

독립변인들 간에 다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변인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와 핵심 문제의 하위변인들 간 상관관계수는 $r=.38\sim.66$ 이었다. 다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49~.74,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1.35~2.06, 상태지수(Condition Index)가 전부 15이하로 다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기혼여성의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와 핵심 문제-사랑과 관심 문제, 권력 문제 및 헌신 문제-가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각 종속변인에 대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네 가지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1)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비난에 대한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와 핵심 문제의 영향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비난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을 <Table 2>에서 살펴보면, 비난은 결혼생활의 사랑과 관심 문제($\beta=.33, p<.001$)가 정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면적 문제($\beta=.19, p<.05$)가 비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권력 문제와 헌신 문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모형은 비난을 20% 설명해주었다. 즉 기혼여성이 결혼생활에서 사랑과 관심 문제와 표면적 문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부싸움에서 비난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경멸에 대한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와 핵심 문제가 미치는 영향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경멸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을 <Table 3>에서 살펴보면, 경멸은 결혼생활의 헌신 문제($\beta=.35, p<.001$)가 정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랑과 관심 문제($\beta=.20, p<.05$)와 표면적 문제($\beta=.14, p<.05$)가 경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권력 문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모형은 경멸을 33%

Table 1. Correlations among Married Women’s Surface Problem, Core Problems, an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Behaviors in Marital Arguments N=182

Variables	1	2	3	4	5	6	7	8
1 Surface Problem	-							
2 Caring Problem	.47***	-						
3 Power Problem	.42***	.53***	-					
4 Commitment Problem	.38***	.66***	.59***	-				
5 Criticism	.34***	.42***	.24***	.30***	-			
6 Contempt	.36***	.49***	.36***	.53***	.63***	-		
7 Defensiveness	.27***	.30***	.34***	.38***	.56***	.54***	-	
8 Stonewalling	.23**	.21**	.33***	.26***	.23**	.31***	.55***	-

** $p < .01$, *** $p < .001$

Table 2. Effects of Married Women's Surface and Core Problems on Criticism in Marital Arguments N=182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β
Criticism	Surface Problem	.19*
	Caring Problem	.33***
	Power Problem	-.04
	Commitment Problem	.04
	<i>F</i>	11.28***
	<i>R</i> ²	.20

* $p < .05$, *** $p < .001$ Table 3. Effects of Married Women's Surface and Core Problems on Contempt in Marital Arguments N=182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β
Contempt	Surface Problem	.14*
	Caring Problem	.20*
	Power Problem	-.01
	Commitment Problem	.35***
	<i>F</i>	21.63***
	<i>R</i> ²	.33

* $p < .05$, *** $p < .001$ Table 4. Effects of Married Women's Surface and Core Problems on Defensiveness in Marital Arguments N=182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β
Defensiveness	Surface Problem	.12
	Caring Problem	.00
	Power Problem	.14
	Commitment Problem	.26**
	<i>F</i>	9.44***
	<i>R</i> ²	.18

** $p < .01$, *** $p < .001$

설명해주었다. 즉 기혼여성이 결혼생활에서 헌신 문제, 사랑과 관심 문제 및 표면적 문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부싸움에서 경멸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방어에 대한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와 핵심 문제가 미치는 영향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방어를 설명하는 회귀모형을 <Table 4>에서 살펴보면, 방어는 결혼생활의 헌신 문제($\beta=.26, p<.01$) 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표면적 문제, 사랑과 관심 문제 및 권력 문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모형은 방어를 18% 설명해주었다. 즉 기혼여성이 결혼생활에서 헌신 문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부싸움에서 방어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냉담에 대한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와 핵심 문제가 미치는 영향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냉담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을 <Table 5>에서 살펴보면, 냉담은 결혼생활의 권력 문제($\beta=.25, p<.01$)

Table 5. Effects of Married Women's Surface and Core Problems on Stonewalling in Marital Arguments N=182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β
Stonewalling	Surface Problem	.11
	Caring Problem	-.04
	Power Problem	.25**
	Commitment Problem	.11
	F	6.42***
	R ²	.13

** $p < .01$, *** $p < .001$

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표면적 문제, 사랑과 관심 문제 및 헌신 문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모형은 냉담을 13% 설명해주었다. 즉 기혼여성이 결혼생활에서 권력 문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부싸움에서 냉담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으로 밝혀진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의 원인이 결혼생활 문제에 있다고 가정하고, 기혼여성이 지각한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와 핵심 문제-사랑과 관심 문제, 권력 문제 및 헌신 문제-가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 각각에 상대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비난은 결혼생활에서 지각한 사랑과 관심 문제가 정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표면적 문제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 문제와 헌신 문제는 비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기혼여성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비난은 결혼생활에서 표면적 문제와 사랑과 관심 문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난에 20%의 설명력을 가졌다.

둘째, 기혼여성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경멸은 결혼생활에서 지각한 헌신 문제가 정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사랑과 관심 문제, 표면적 문제 순으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 문제는 경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기혼여성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경멸은 결혼생활에서 헌신 문제, 사랑과 관심 문제 및 표면적 문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멸에 33%의 설명력을 가졌다.

셋째, 기혼여성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방어는 결혼생활

에서 지각한 헌신 문제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표면적 문제, 사랑과 관심 문제 및 권력 문제는 방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기혼여성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방어는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의 헌신 문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방어에 18%의 설명력을 가졌다.

넷째, 기혼여성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냉담은 결혼생활에서 지각한 권력 문제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표면적 문제, 사랑과 관심 문제 및 헌신 문제는 냉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기혼여성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냉담은 결혼생활에서 권력 문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냉담에 13%의 설명력을 가졌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은 배우자에게서 받는 사랑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각할수록 부부싸움에서 비난과 경멸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Mason & Blankenship, 1987; Christensen, 1988; Krokoff, 1990; Walczynski, 1997; Caughlin & Vangelisti, 2000; Fischer & Roseman, 200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여성의 친밀감 욕구가 높은 경향성(Christensen, 1988)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결혼관계에서 사랑과 관심이 채워지지 않는 데서 오는 원망과 유대감 단절에 대한 두려움(Johnson, 2008)이 비난과 경멸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모순적이지만 배우자에게 거칠게 비난하고 경멸하는 여성의 행동 이면에는 의외로 배우자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자하는 간절한 바람이 숨어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목할 점은 선행연구는 핵심 문제로 주로 사랑과 관심 문제와 권력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지속할 마음이 없고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헌신 문제가 경멸과 방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헌신 문제는 부부관계의 지속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Campbell & Ponzetti, 2007) 배우자가 자신과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Rusbult, 1983) 자신이 버림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헌신 문제는 관계 위기감을 고조시키며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또한 관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생각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도 줄어들 수 있다(Markman, Stanley, & Blumberg, 2010). 때문에 헌신 문제가 있으면 배우자에게서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경멸이 증가하게 되며, 배우자에게서 더 이상 억울하게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에서 방어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서 앞으로 헌신 문제도 중요한 변인으로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결혼생활에서 배우자가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려 한다고 지각하는 권력 문제가 있을수록 부부싸움에서 냉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상대방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냉담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 Wilmot and Hocker(2011)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는 아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이 아내의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아내 편에서 결국 화가 나서 외면하는 식의 냉담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냉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권력 문제 하나만 나타났으며 냉담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낮았다는 점은 후속연구에서 냉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관련변인들을 찾을 필요성을 제기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는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 각각에 대한 핵심 문제의 영향력이었다. 즉 비난은 사랑과 관심 문제가, 경멸과 방어는 헌신 문제가 그리고 냉담은 권력 문제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핵심 문제가 표면적 문제보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Kwon and Kim(201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며, 각각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조금씩 다르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경멸은 핵심 문제 중에서 헌신 문제와 사랑과 관심 문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경멸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이는 핵심 문제의 중심에 경멸의 감정이 있다고 한 Krokoff(1990)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핵심 문제가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들 중에서도 특히 경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결혼생활에서 자녀양육, 돈, 가사일, 성관계 등에 관한 표면적 문제는 비난과 경멸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표면적 문제의 영향력은 핵심 문제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비난에 대한 표면적 문제의 유의미한

영향은 선행연구들(Christensen & Heavey, 1990; Heavy, Layne, & Christensen, 1993; Caughlin & Vangelisti, 2000; Kluwer, Heesink, & Van De Vliert, 2000; Vogel & Karney, 2002; Holley, Sturm, & Levenson, 2010)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이다. 비난은 배우자의 표면적 문제로 인해 쌓인 실망감과 분노를 발산시키고 배우자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Raush et al., 1974; Christensen & Jacobson, 2000; Wilmot & Hocker, 2011). 그리고 경멸에 대한 표면적 문제의 유의미한 영향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표면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무능하게 보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판단(Fischer & Roseman, 2007; Hutcherson & Gross, 2011; Ufkes et al., 2011)에서 생긴 체념과 분노가 배우자를 멸시하는 경멸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비난과 경멸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의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섯째, 선행연구(Krokoff, 1990)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권력 문제가 경멸이나 방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강한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chilling effect)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Solomon, Knobloch, & Fitzpatrick, 2004). 이러한 권력 문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기혼여성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은 특히 결혼생활의 핵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혼여성이 사용하는 비난은 사랑과 관심 문제가, 경멸은 헌신 문제 및 사랑과 관심 문제가, 방어는 헌신 문제가, 그리고 냉담은 권력 문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비난과 경멸의 사용에는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싸움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대부분의 부부갈등에 대한 개입은 행동기능의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Gordon & Christman, 2008). 그런데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의 중심에는 관계 안전감과 자존감을 가장 많이 위협하는 핵심 문제가 내제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문제를 찾아 다루는 개입이 마련되어야 한다. Markman, Stanley, and Blumberg(2010)도 부부사이에 핵심 문제가 드러나고 표현될 때 비로소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개입 전문가들은 부부사이에 숨어 있는 핵심 문제가 드러나도록 먼저 부부의 내적 독백에 초점을 맞추고 배우자의 사랑과 관심, 권력 및 헌신에 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각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조금씩 차이를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난과 경멸을 자주 사용하는 여성에게는 그러한 격한 행동이 부부간 사랑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배우자에게 분노와 멸시의 거친 감정보다는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은 바람과 버림받게 될 것 같은 두려움 등의 약한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도록 격려함으로써 부부사이에 정서적 교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Davila, 2005; Johnson, 2008). 한편 방어가 심한 여성의 경우에는 내적으로 현신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냉담이 심한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의 영향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표본 수가 적다는 점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의 표본 수를 늘려 본 연구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가 부산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으로 한정되었고 학력이 높은 여성들이 많이 표집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표집의 편향성을 줄이고 연구대상으로 기혼남성도 포함시켜서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와 핵심 문제의 영향에 있어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을 측정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의사소통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관찰평정법, 일지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더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필요가 있다. 넷째,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와 핵심 문제만 살펴보았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은 성격, 애착 유형, 원가족 경험 등 개인적 특성의 영향도 받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결혼생활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성도 관련변인으로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을 손상시키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으로 잘 알려진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생활 문제를 구체적으로 발견함으로써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이 유발되는 기제를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부부사이의 핵심 문제로서 사랑과 관심 문제와 권력 문제가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본 연구를 통해 현신 문제가 경멸과 방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이로써 현신 문제를 중요한 핵심 문제로서 부각시켜 살펴볼 가치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셋째,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들 중에서도 특히 경멸이 야기되는데 핵심 문제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기초로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더욱 심층적으로 밝히는 후속연구가 이어져서 부부싸움에서 이러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부부개입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dams, C. M.(2004). *Effects of problem specificity, problem severity, and integrative complexity on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Florida, Gainesville.
- Arellano, C. M., & Markman, H. J.(1995). The Managing Affect and Differences Scale (MADS): A self-report measure assessing conflict management in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3), 319-334.
- Beck, A. T.(1988). Je, S. Trans.(2005). *Love is never enough: How couples can overcome misunderstandings, resolve conflicts, and solve relationship problems*. Seoul: Hakjisa.
- Campbell, K., & Ponzetti, J.(2007). The moderating effects of rituals on commitment in premarital involvements. *Journal of Sexuality and Relationship Therapy*, 22(4), 415-428.
- Caughlin, J. P., & Vangelisti, A. L.(2000). An individual difference explanation of why married couples engage in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conflic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7(4-5), 523-551.
- Christensen, A.(1988). Dysfunctional interaction patterns in couples. In Noller, P. & Fitzpatrick, M. A.(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31-52).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 Christensen, A., & Heavey, C. L.(1990). Gender and social structure in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3-81.
- Christensen, A., & Jacobson, N. S.(2000). *Reconcilable differences*. N.Y.: Guilford Press.
- Chung, M., Chun, Y., Kim, S., & Jeong, S.(2010). Conflictual issues in marital conversation, patterns of dysfunctional interaction, and dyadic perspective-taking among the Korean couples with minor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3), 1305-1324.

- Davila, J.(2005). Attachment processes in couple therapy: Informing behavioral models. In Johnson, S. M. & Whiffen, V. E.(Eds.). *Attachment processes in couples and family therapy*(124-143). N.Y.: Guilford Press.
- Denton, W. H., Burlison, B. R., & Brubaker, P. H.(2009). Avoidance may be bad for the heart: A comparison of dyadic initiator tendency in cardiac rehabilitation patients and matched controls. *Behavioral Medicine, 35*, 135-142.
- Driver, J. L., Tabares, A., Shapiro, A., Nahm, E. Y., & Gottman, J. M.(2003). Interactional patterns in marital success and failure: Gottman laboratory studies. In Walsh, F.(Ed.). *Normal family processes: Growing diversity and complexity* (3rd ed., 493-513). N.Y.: Guilford Press.
- Fischer, A. H., & Roseman, I. J.(2007). Beat them or ban them: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functions of anger and contem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1), 103-115.
- Gordon, K. C., & Christman, J. A.(2008). Integrating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attachment research with cognitive-behavioral couple therapy.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logy, 38*, 129-138.
- Gottman, J. M.(1983). *Hidden agenda checklist*.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 Gottman, J. M.(1999). *The marriage clinic: A scientifically-based marital therapy*. N.Y.: W. W. Norton.
- Gottman, J. M., & Levenson, R. W.(1999). Dysfunctional marital conflict: Women are being unfairly blamed.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1*, 1-18.
- Graber, E. C., Laurenceau, J-P., Miga, E., Chango, J. M., & Coan, J. A.(2011). Conflict and love: Predicting newlywed marital outcomes from two interaction contex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4), 541-550.
- Heavey, C. L., Layne, C., & Christensen, A.(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16-27.
- Heffner, K. L., Loving, T. J., Kiecolt-Glaser, J. K., Hima-wan, L. K., Glaser, R., & Malarkey, W. B.(2006). Older spouses' cortisol responses to marital conflict: Associations with demand/withdraw communication pattern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9*, 317-325.
- Henry R. G., & Miller R. B.(2004). Marital problems occurring in midlife: Implications for couples therapist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2*, 405-417.
- Holley S. R., Sturm V. E., & Levenson R. W.(2010). Exploring the basis for gender differences in the demand-withdraw pattern. *Journal of Homosexuality, 57*(5), 666-684.
- Hong, S., & Chae, K.(2010). A study on Korean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based on Gottman's theory.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1*(2), 299-316.
- Hutcherson, C. A., & Gross, J. J.(2011). The moral emotions: A social functionalist account of anger, disgust, and contem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 719-737.
- Hyun, K.(2008). Economic stress and marital relations among the low-income couple: A focus on self-construal that promotes resilient coping.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2*(3), 49-79.
- Johnson, S. M.(2008). Park, S. Trans.(2010). *Hold me tight: Seven conversations for a lifetime of love*. Seoul: Innerbooks.
- Kluwer, E. S., Heesink, J. A. M., & Van de Vliert, E. (2000). The division of labor in close relationships: An asymmetrical conflict issue. *Personal Relationships, 7*(3), 263-282.
- Knobloch, L. K., Miller, L. E., Bond, B. J., & Mannone, S. E.(2007). Relational uncertainty and message processing in marriage. *Communication Monographs, 74*(2), 154-180.
- Krokoff, L. J.(1990). Hidden agendas in marriage: Affective and longitudinal dimensions. *Communication Research, 17*, 483-499.
- Kwon, Y., & Kim, D.(2008a). Development of the Dysfunctional Communication Behavior Scale for married couples: Focusing on Gottman's four horsemen of the Apocalyps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6), 101-113.
- Kwon, Y., & Kim, D.(2008b). The influence of married couples' argument-communication behaviors on marital satisfaction: Analyses at the dyadic level.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46(10), 83-96.
- Kwon, Y., & Kim, D.(2011). Variables influencing 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From a cognitive-behavioral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7), 67-80.
- Lee, H.(2009). A study on couples' conflict factor in the middle stage of marriage.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12(1), 77-88.
- Lee, K.(1998). *Marriage types classified by wive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intim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 Lee, Y., & Jang, Y.(2002). A study on marital conflict degree and conflict management method, conflict result perceived by the housewives in the early marriage stag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7(1), 79-93.
- Markman, H. J., Stanley, S. M., & Blumberg, S. L.(2010). *Fighting for your marriage*(3r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 Mason, A., & Blankenship, V.(1987). Power and affiliation motivation, stress and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203-210.
- Miller, R. B., Yorgason, J. B., Sandberg, J. G., & White, M. B.(2003). Presenting problems that couples bring to therapy: A view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1(5), 395-407.
- Murray, S. L., Bellavia, G. M., Rose, P., & Griffin, D. W.(2003). Once hurt, twice hurtful: How perceived regard regulates daily marital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126-147.
- Olsen, D., & Stephens, D.(2001). Shin, H., Han, S., & Yoon, M. Trans.(2009). *The couple's survival workbook: What you can do to reconnect with your partner and make your marriage work*. Seoul: Hakjisa.
- Park, S.(2011). *Can we be happy again: Restoring injured relationships using Emotionally Focused Couple Therapy*. Seoul: Jisikchannel.
- Raush, H. L., Barry, W. A., Hertel, R. K., & Swain M. A.(1974). *Communication, conflict and marriage: Explorations in the theory and study of intimate relationships*. San Francisco: Jossey-Bass.
- Rusbult, C. E.(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olv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01-117.
- Sanford, K.(2003). Problem-solving conversations in marriage: Does it matter what topics couples discuss? *Personal Relationships*, 10, 97-112.
- Sanford, K.(2010). Perceived threat and perceived neglect: Couples' underlying concerns during conflict. *Psychological Assessment*, 22, 288-297.
- Satir, V., Banmen, J., Gerber, J., & Gomori, M.(1991). Korea Satir Institute Trans.(2000). *The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Seoul: Kimyoungae Family Therapy Center.
- Schindler, L., Hahlweg, K., & Revenstorf, D.(2007). Lee, N. Trans.(2009). *Partnerschaftsprobleme: Möglichkeiten zur bewältigung*. Seoul: Innerbooks.
- Sillars, A., Canary, D. J., & Tafoya, M.(2004). Communication, conflict, and th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In Vangelisti, A. L.(Ed.), *Handbook of family communication*(413-446). Mahwah, NJ: Erlbaum.
- Sillars, A., Roberts, L. J. Dun, T., & Leonard, K. E.(2001). Stepping into the stream of thought: Cognition during marital conflict. In Manusov, V. & Harvey, J.(Eds). *Attribution, communication behavior, and close relationships*(193-210).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llars, A., Roberts, L. J., Leonard, K. E., & Dun, T. (2000). Cognition during marital conflict: The relationship of thought and talk.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7, 479-502.
- Solomon, D. H., Knobloch, L. K., & Fitzpatrick, M. A. (2004). Relational power, marital schema, and decisions to withhold complaints: An investigation of the chilling effect on confrontation in marriage. *Communication Studies*, 55(1), 146-167.
- Song, D., Mun, J., & Kim, Y.(2012). Effects of married women's maladaptive-personality and conflict-behavior on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1), 65-76.
- Song, J., & Chae, K.(2008). A study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und Korean couples based on Gottman's theory.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11, 95-125.
- Statistics Korea(2013). *Marriage and divorce statistics in*

2012. www.kostat.go.kr.

- Storaasli, R. D., & Markman, H. J.(1990). Relationship problems in the premarital and early stages of marriage: A test of family development theor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 80-98.
- Ufkes, E. G., Otten, S., Van der Zee, K. I., Giebels, E., & Dovidio, J. F.(2012). The effect of stereotype content on anger versus contempt in “day-to-day” conflicts.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15*(1), 57-74.
- Vogel, D. L., & Karney, B. R.(2002). Demands and withdrawal in newlyweds: Elaborating on the social structure hypothe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9*, 685-701.
- Walczynski P. T.(1997). *Power, personality, and conflictual interaction: An exploration of demand/withdraw interaction in same-sex and cross-sex coup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Weiss, R. L.(1980). Strategic behavioral marital therapy: Toward a model for assessment and intervention. In Vincent, J. P.(Ed.).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229-271). Greenwich, CT: JAI Press.
- Whelan, S. E.(2006). *An exploration of marital intera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ttman’s conflict resolution style and ‘four horsemen’, attachment theory, perception, gender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Melbourne, Australia.
- Wilmot W. W., & Hocker. J. L.(2011). *Interpersonal Conflict*. N.Y.: McGraw-Hill.

- 접수일 : 2013년 03월 15일
- 심사일 : 2013년 04월 02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5월 14일